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 ~ 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 들어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1.6%가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 개선 요구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범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의 방법에는 특정 장소의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거나 조정하기,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시 기회를 증가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낙후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에 위치한 골목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이후 2년 동안 범죄 발생률이 무려 2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활용해 우리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을 어떻게 바꿔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골목 입구에 높게 쌓여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근처 공사장의 건축 자재들을 정리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골목길의 낡은 벽을 보수하고 그 벽에 화사한 색깔의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가능하겠죠? 이런 바람직한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연계가 되어 ‘우리 마을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의 손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배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바로 지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했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① ~ ⑤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환경 개선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해야겠어. ① 먼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어. 그 다음 ②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그리고 ③ 해결 방안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언급하면서 그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지. ④ 그 방법을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⑤ 끝으로 개선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지 >

- 발표를 듣기 전 어떤 내용을 예상했었나요?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이나 현수막 등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발표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세요.
 - ‘범죄 예방 디자인’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낙후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나서 이 발표가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 통계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난 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 ○○구에 위치한 골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였는지 궁금하다. ... ㉣
-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우리 주변에 적용시켜 볼까요?
 - 우리 집 앞의 놀이터에 으스스한 곳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볼록 거울을 설치해 달라고 관할 기관에 건의해야겠다. ㉤

- 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주변 환경의 설계나 관리와도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② ‘범죄 예방 디자인’의 효과를 잘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③ 발표에서는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④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⑤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았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3~5] (가)는 면접 준비를 위한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신입 부원을 선발하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 2: 먼저 ㉠ 우리 창업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확인해야겠지? 그 다음에는, 우리 동아리가 창업 아이디어를 내어 타당한 사업인지 평가하는 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 지원자가 생각해 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질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원자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자.

(나)

면접자: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원자: 저는 디저트 전문점을 창업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자: 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원자: 어렸을 때부터 디저트를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A]

면접자: 그렇다면 창업 동아리보다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자: 제과·제빵 동아리는 디저트를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창업 동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창업 동아리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B]

면접자: 네, 그럼 디저트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나요?

지원자: (당황하며) 아이디어요?

면접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평소 창업하고 싶던 디저트 전문점의 모습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과와 서양의 쿠키를 접목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디저트 전문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C]

면접자: (웃으며) 좋은 아이디어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사업 타당성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지원자: 네, 책에서 읽어 알고 있습니다.

면접자: 우리 동아리에서는 매월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종이를 주며) 이 창업 아이디어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타당성을 평가하실 때는 소비자의 특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품 제작 여건 등의 요소를 고려해 주시겠어요?

모의 창업 아이디어

- 제품: 주먹밥 • 가격: ××원
- 예상 소비자: 우리 학교 학생
- 내용: 주먹밥을 만들어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 판매

지원자: (잠시 생각한 후에)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짜리 주먹밥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지원자께서는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

지원자: 일찍 등교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여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에 간편한 주먹밥을 판매하는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면접자: 네,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3. (가)의 ㉠~㉢과 관련지어, (나)의 면접자의 질문 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원 동기를 물어본 후 지원자의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을 추가로 질문했다.
- ② ㉡: 지원자가 자신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완해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제시하며 질문했다.
- ③ ㉢: 창업 아이디어에 관한 질문에 당황한 지원자가 긴장을 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④ ㉢: 지원자가 질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 ⑤ ㉢: 모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성하여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4.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꿈을 정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② [B]: 창업 동아리와 제과·제빵 동아리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창업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B]: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열거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동아리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④ [C]: 다양한 창업 사례로부터 디저트 전문점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C]: 디저트 사업의 최신 동향을 제시하며 창업하려는 디저트 전문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5. 대화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에 들어갈 면접자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번에는 소비자의 특성을 제외하고 판매자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② 이번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제품 제작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③ 경제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④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⑤ 주변에 주먹밥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6~7]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시골의 마을 회관 옆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에 모여 더위를 식히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정겹다. 가을이면 풍성하게 달린 노란 은행잎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떨어진 은행잎들을 서로 던지며 웃음꽃을 피운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오랫동안 살며 ㉠ 지켜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은행나무를 정성껏 가꾼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무를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가로수로 서 있는 은행나무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 은행나무는 점잖은 기품을 가지고 있어 조선의 선비들이 애착을 보인 나무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부터가 인위적이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 개성이 사라져 버린 은행나무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교통 신호등이나 길거리의 간판을 ㉢ 가려지면 잘 자라던 나뭇가지도 여지없이 가지치기를 당한다. 마음껏 성장할 자유를 빼앗긴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게다가 은행의 교묘한 뉘새를 아예 ㉣ 없애니까 암나무를 모두 수나무로 교체해 버렸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저 가로수는 열매도 맺기 어렵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일도 ㉤ 서슴치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사람들이 거리의 은행나무를 대하듯이 나도 내 편의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것은 아닐까?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았던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6. 초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생의 연상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골의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휴식처가 되어 주는 모습에 대해 정겨움을 느꼈다.
- ②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풍성하게 달린 시골의 은행나무를 보고, 할머니와 함께 은행잎을 던지며 놀았던 추억을 떠올렸다.
- ③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인간에 의해 개성을 잃게 된 은행나무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④ 가지치기를 당한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마음껏 성장할 자유를 빼앗긴 은행나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 ⑤ 암나무 대신에 수나무로 교체된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인간의 이기심을 떠올렸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자신들을'을 삽입한다.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였으므로 '가려지면'으로 고친다.
- ④ ㉣은 뒤 절과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없어서'로 고친다.
- ⑤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서슴치'로 고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어린이 통학 버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로 보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의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학 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의 대상을 일반 운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그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이 마련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유의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를 만나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 확인 후 통과하기, 주변을 살펴서 안전을 확보해 주기, 같이 길 건너 주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

8. [A]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밝힌다.
- ② 통념을 제시하여 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④ 중심 화제의 특징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제시한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 ~ ㉣이 초고에 활용된 방안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본보에서는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렀으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 (중략) ...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개정된 법은 안전 교육, 보호자 탑승, 안전 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 ○○신문 -

○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8~10시, 오후 4~6시이다. ... (중략) ... ㉣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 연구 보고서 -

- ① ㉠의 결과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② ㉡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③ ㉢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④ ㉣에 제시된 원인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⑤ ㉤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을 주장하였다.

10. <조건>에 따라 초고의 ㉦ 부분을 완성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글에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독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① 몇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 함께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 ③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버스 승하차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용 승하차 장소를 지정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④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통학 버스 승하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안전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나 운영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1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벌써 바깥이 철쭉같이 어둡다.
㉢ 신입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12. <보기>를 참조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연음은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발음되는 현상이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곧바로 연음이 일어나지만, ‘ㄴ, ㄷ, ㄱ, ㄷ, ㄱ’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홀웃[호돋]’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난다.

- ① ‘발은소리’는 용언의 활용형인 ‘발은’과 명사 ‘소리’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바든소리]로 발음한다.
② ‘달’에 조사 ‘으로’가 붙으면 [나트로]라고 발음하지만, 어근 ‘알’이 붙으면 [나달]로 발음한다.
③ ‘앞어금니’는 어근 ‘앞’과 ‘어금니’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④ ‘겉웃음’은 ‘웃-’이 어근이고, ‘-음’이 접사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⑤ ‘발’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연음되어 [바를]로 발음한다.

13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 (가) 찌개를 먹다가 혀를 데었다.
-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잤다.

-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가 나타났다.
-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 ④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ㄱ)과 사동문 (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ㄱ) 얼음이 녹는다.
- (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한편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ㄷ)과 사동문 (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ㄷ) 영화가 책을 읽었다.
- (ㄹ) 선생님께서 영화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단형 사동이라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장형 사동이라 한다.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동 행위를 받는 대상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직접 사동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 사동이라 하는데,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졌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얼음 위에서 뺑이가 돈다.
 - ㉡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 ①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목적으로 바뀔 것이다.
-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③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⑤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15세기 국어] 𐄀𐄀𐄀 𐄀𐄀 𐄀𐄀 ㉠ 얼우시고
[현대 국어] 강에 배가 없으므로 (강물을) 얼리시고
 - [15세기 국어] 목수물 ㉡ 일케 햏야노
[현대 국어]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15세기 국어] 比丘란 노피 ㉢ 안치시고
[현대 국어] 비구는 높이 앉히시고
 - [15세기 국어] 나랏 小民을 ㉣ 사르시리잇가
[현대 국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겠습니까
 - [15세기 국어] 투구 아니 ㉤ 밧기시면
[현대 국어]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 ① ㉠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햏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은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④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는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㉔ 저명한 프랑스의 현대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이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통념을 거스른다. ‘생각하는 사람’은 작가가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며 시각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한 감상자는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㉕ 시사한다. 표면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 경험은 눈과 손, 코와 귀 등이 총체적으로 얹혀 있는 우리의 ‘몸’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몸(corps)’의 철학’을 생각나게 한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 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는 몸은 그저 물리적·화학적·생리적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경험을 ‘현상’과 관련짓는다. 그에게 현상은 객관과 주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을 ‘쨍그랑’ 소리와 그 소리가 난 원인에 ㉖ 주목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소리를 지각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이 현상이 된다고 본다. 접시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아무리 큰 ‘쨍그랑’ 소리가 났더라도 그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는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리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런데 현상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는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독일의 철학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활용한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으로 향하여’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㉗ 수용하여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라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 대한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단순히 감각 기관이나 두뇌의 활동이 아닌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령,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공간적인 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나의 조망에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모니터의 정면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이라고 본다. 그는 지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를 ‘세계에의 존재(être au monde)’

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순수한 객관적 세계도, 순수한 주관적 세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만나 관계함으로써 지각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각이 일어나는 장을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활동은 사유보다 앞서는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긴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데는 몸보다 인간의 추상적 정신 활동, 즉 지성을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서양 철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을 ㉘ 폄하하고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메를로퐁티는 그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성 또한 광범위한 몸의 활동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양의 지적 전통과 대립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이며 또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표현이다. 몸을 중시한 로댕의 작품은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로댕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작품은 그저 시각적 충격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은 관람객과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㉙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되어, 작품과 몸이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주체가 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연계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작품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며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특정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예술 갈래의 특징을 제시하며 그 갈래와 연관된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특정 예술 갈래의 예술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철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특정 작품에 활용된 철학적 체제의 특성을 밝히며 그 체제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17. 밑글의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니다.
- ② ‘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비롯되는 근원이다.
- ③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
- ④ ‘몸’은 다양한 감각의 소통과 통일을 이루는 작용의 주체이다.
-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달리 ‘지성’보다 ‘몸’을 더 중시해야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코메티, 'suspended ball'

< 보 기 >

이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승달 모양의 비스듬하게 누운 돌 위에 흠이 파인 공 모양의 돌이 배치되어 아래에 있는 돌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는, 관람객에게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한 위태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느낌은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시각이 아닌 '몸'을 겨냥해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나타낸다.

- ① 아래에 위치한 돌조각이 관람객에게 '초승달과 닮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된 순간은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두 개의 돌조각이 포개져 있는 것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현상적 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관람객이 위쪽에 있는 돌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관람객이 아래쪽 돌의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각했다라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9. 윗글의 메트로폰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와 B는 ○○밴드의 공연장에 함께 갔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공연장에서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연이 끝난 후 A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도 좋았지만 베이스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자, B는 베이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A가 그 까닭을 묻자, B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소리에 빠져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①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었다.
- ② B와 달리 A는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
- ③ B와 달리 A의 '몸'은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않았다.
- ④ A와 달리 B에게는 베이스 연주 소리가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었다.
- ⑤ A와 달리 B는 의식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었다.

20.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려면 작품과 몸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
- ④ 작품에 대해 몸이 반응해 관계를 맺으려면 '지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는 작품과 몸의 관계 맺음을 촉진해 몸과 작품의 관계를 밀착시킨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 ②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 ③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④ ㉡: 옳다고 인정함.
- ⑤ ㉣: 가치를 깎아내림.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 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남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주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이의 내용으로는 '내직'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탄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씩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꾀꼬리는 벼를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넋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엿지 그리 허송하랴
(중략)

[A]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히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앓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갑자을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텐둥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텐둥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텐둥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내
그중에도 텐둥어미 멋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피워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B] 열네 살에 시집을 때 청칠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았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중전**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선풍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불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C]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잊을쏜가

[C]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꺾어 입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입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D] 촛불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는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축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यो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냐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텐둥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매마침 단오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텐둥어미 화전가」 -

* 신명 도망: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도망을 침.

2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군.
-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23.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 ○ 봄을 맞이한 심회를 읊음. | ㉠ |
| ○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함. | ㉡ |
| ○ 화전놀이를 위한 경비를 추렴함. | ㉢ |
| ○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25.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종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C] : 대구를 활용하여 부제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이’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 :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26.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부인들이 ‘내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덴둥어미’가 ‘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덴둥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7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지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별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지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 뜻한다.

31. ㉠ ~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이곳에서 얇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 ② ㉡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꺼어야 했다.
- ③ ㉢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온도, 압력, 유량, 회전 속도 등의 물리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센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흔히 활용된다. 이 장치에서는 ㉠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어 가열기에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되어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스위치가 on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되고, 스위치가 off일 때에는 조작량이 0%가 된다.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 on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여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현팅’이 발생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오버슈트와 현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on/off 스위치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ID 제어 방식은 P(비례) 제어, I(적분) 제어, D(미분) 제어를 모두 활용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제어 방식, PI 제어 방식,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예컨대 P 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의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스위치를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서는 스위치의 on과 off 동작이 반복된다. 즉, ㉢ 비례대 하한선을 넘는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on 시간이 off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on과 off 시간이 1:1인 동작이 반복된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off 시간이 on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을 넘으면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할 때보다 현팅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 제어가 활용될 때, ㉤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on과 off의 반복 동작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편차가 커지지만 현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편차가 작아지지만 현팅이 발생하기 쉽다.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설정값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적분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분 시간을 통해 동작의 세기를 조절한다.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강해져 잔류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지만 현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약해져 현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잔류편차를 없애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만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하는데,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쉽다.

32.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된다.
- ② 현팅 현상이 지속되면 측정값과 설정값이 일치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③ PI 제어에서 조작량은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출력된다.
- ④ on/off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 조작량은 데울 물의 양이다.
- ⑤ P 제어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I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D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3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낮은 경우이다.
- ② ㉡ : 조작량이 100%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 ③ ㉢ : 100%에서 50% 사이의 조작량이 출력되는 때이다.
- ④ ㉣ : 스위치가 on 상태로 지속되는 때이다.
- ⑤ ㉤ : 비례 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이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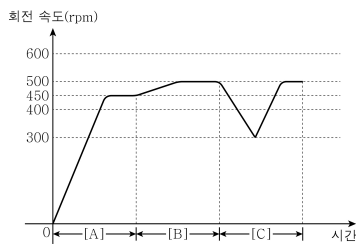
최근 강한 수증기 압력으로 인한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기계가 많이 쓰인다. 이 기계에는 물을 끓이는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분출되는 수증기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증기압 조절 장치, 수조의 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보충해 주는 수위 조절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다.

- ① 온도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가열기의 작동 초기에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온도 조절 장치에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③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④ 증기압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현재의 증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off로 바꾸어도 증기압이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 ⑤ 수위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보다 헌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P 제어, [B]에서는 PI 제어, [C]에서는 PID 제어를 활용하였다. (단, 설정값은 500 rpm*, 비례대는 400 ~ 600 rpm, 잔류편차는 50 rpm이다.)



* rpm: 1분당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

- ① [A]에서 비례대가 430 ~ 570 rpm으로 수정되면 잔류편차는 50 rpm보다 크겠구나.
- ② [B]에서 헌팅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 ③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 ④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30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 ⑤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겠구나.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이다 그 대가로 일가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폐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내'는 새 여인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맡기고 자신도 고향에 빠를 문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 온 '사내'를 데리고 밤에 산을 오른다.

사내가 일어서서 골짜기 아래를 눈으로 더듬었다. 골짜기에서부터 부챗살처럼 펼쳐 나간 벌판에는 가득히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달빛, 달빛뿐이었다. 그 달빛에 사내는 어쩔지 눈이 시렸다. 사내는 마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달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달빛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귀에 가득히 뽕파리 소리가 밀물져 들어왔다. 사내는 바로 사내가 선 자리에 빠를 묻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 가 보자.”

노인이 이번엔 앞장을 섰다. 등성의 가르마 길을 타고 오르자 산 툇장썰에서부터 숲이 끊기고 벌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갑자기 산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그들을 허우적거리게 했다.

노인이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잡고 민둥산을 훑어보았다.

“버렸어. 산두 그때 다 버렸어. 포탄으로 맥이란 맥은 다 끊어 버리구…… 다야 니놈들 때문이여.”

사내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을 보았다.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는 뽕파리 터쳐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내가 마치 그것들을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① “가지라우.”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에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나왔다. 노인이 멈추어 섰다.

“여기여.”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맥이 다치지 않은 데라군 이 산에서 여기뿐여.”

사내는 평지의 잔솔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보았다. 사내가 얼굴에 두려운 기색을 떠올리며 봉분들에서 눈을 돌렸다.

“사죄해라. 이게 다 니놈 때문에 생긴신 원혼들이여.”

“…….”

사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재촉했다.

“아, 뭘 해? 빨리 엎드려 잘못을 빌지 않구.”

사내가 가까운 봉분 앞에서 재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자,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게 울득이여.”

사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형언하기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滿空)의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사내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내려 마른 풀잎을 적셨다. 사내가 하나하나 봉분을 옮겨 가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노인은 뒤에서, 그게 당숙 둘째 자제여, 그게 사촌 형님 손자여, 그게 누여, 사내에게 일일이 소개를 했고, 그럴 때마다 사내는 잠깐씩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다.

(중략)

노인은 다른 봉분들과는 달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한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갔다. 사내가 봉분 앞에서 엎드리려 하자, 노인이 만류했다.

“그건 사죄할 필요 없다.”

“.....?”

“그건 니놈이여.”

㉠ “.....예?”

노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 사내를 쳐다보았다.

“아, 우린 죄다 니놈을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설사 니놈이 살아 있는 걸 알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니놈도 읍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여?”

노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에 일순 애매한 표정이 스치자 노인이 사내의 표정을 피했다.

“니놈은 호적에도 없다. 사망 신고를 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허니까.....”

사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 쿨룩, 쿨룩, 쿠루옥..... 온몸의 가래를 훑어 올리는 듯한 기침 끝에 사내는 한 움큼의 피를 토해 냈다. 노인이 부욱,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뉘어라.”

사내가 잠자코 두루마기 자락을 받아 얼굴과 손의 피를 씻었다. 흰 두루마기 자락에 핏빛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문득 사내의 눈에 달과 함께 수면에서 흔들리던 피 묻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사내가 말했다.

“아부님, 전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겠수.”

노인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니놈은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할 놈여.”

“아무래도 죽을 목숨이우.”

“죽드라도 타처에 가서 죽어라.”

“아부님.”

사내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 노인이 백랍 같은 표정으로 사내를 때치고 일어섰다.

“이 길로 곧장 떠나가라. 자식 놈은 내가 맡으마.”

노인과 사내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에는 달이 톱날 같은 연봉에 걸려 있었다. 사내가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아부지, 그럼.....”

사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어서 가.”

㉣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저만큼 멀어질 즈음에 노인이 사내의 등을 향해 외쳤다.

“죽게 되든 연락해라. 내 니놈 뒷수습은 해 줄 테니까.”

[C] 이윽고 노인은 앞이 침침해지면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선 자리에서 나무토막처럼 폭 쓰러졌다.
달이 졌다.

- 송기원, 「월행」 -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 ⑤ ㉤: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60~1970년대에 많이 등장한 귀향 모티프 소설 중에는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귀향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월행」에도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시 찾은 고향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에 주인공과 고향의 관계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주인공은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만, 고향은 그의 귀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 ①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사내’가 고향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든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제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 [A]~[C]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③ [C]에서는 ‘달’의 변화된 상황이 ‘사내’의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달빛’의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테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웅양웅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호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쓸려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 준 적 있었는가 피워 본 적 있었던가
-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

3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나)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40. (가), (나)의 시상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상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 ② ㉠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은 애상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은 화자의 관조적인 태도를,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유도한다.
- ④ ㉠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이끌어낸다.
- ⑤ ㉠은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은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함축한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무수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순수를 지향하며 단절과 고립을 자처하기도 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계를 대하는 저마다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담지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나'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는 것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지속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자처한 고립과 '나타샤'에 대한 '나'의 몰입을 심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바위'가 먼저 '술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내가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수정은 남북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연과 함께 제후가 된다.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장연과 혼인시킨다. 한편 정수정은 장연의 첩이 방자하게 굴자 참수한다.

궁중 상하 크게 놀라 태부인께 고한대 태부인이 대경실색하여 즉시 장 후를 불러 대책(大責) 왓

“네 벼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 며느리가 되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때로써 벌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참수지경에 이르니 이는 남이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거늘 장 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물러나서 이에 정 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거늘 공주와 원 부인이 힘써 간하여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 후가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조석정성(朝夕定省)에 만나매 외대(外待)함이 많은지라. 정 후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도 장 후의 냉대함은 거리까지 않았다. 일일은 중당에서 장 후를 대하여 왓

“군후가 일개 희첩으로 말미암아 첩을 깊이 한하시나 군자의 제가(齊家)하시는 근본이 아닌가 하나이다.”

장 후가 대로 왓

“그대 한낱 공후의 위를 믿고 여자의 경부(敬夫)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희첩을 처살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온순한 부덕(婦德)인가?”

정 후가 분해하여 함루(含淚) 왓

“내 일찍 이 같음이 본대 부모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못함 이요, 다시 황은을 받들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 되었으나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

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진시회를 불러 분부하되

“내 이제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대령하라.”

하고 이에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하직을 고한대 태부인 발연 왓

“어찌 연고 없이 가려 하나뇨?”

정 후 왓

“봉읍이 중대하옵고 군무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하고 공주와 원 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威儀)를 재촉하여 ㉠ 청주에 돌아와 좌정 후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城地)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방비하라 하다.

차설. 이전에 철통골이 겨우 일명(一命)을 보전하여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한대 호왕이 대성통곡 왓

㉡ “허다 장졸을 죽여시니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

하고 문무를 모아 대장을 의논할새 문득 한 장수가 왓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갚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왕 휘하에 드리리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거기장군 마원이라. ㉢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는지라. 호왕이 대희하여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로 선봉장을 삼아 정병 오만을 징발하여 출사할새 수삭지내(數朔之內)에 하북 삼십여 성을 항복받고 이미 양성에 다 다랐는지라. 양성 태수 범규홍이 대경하여 바빠 상표 고변한대 상이 대경하사 문무를 모아 의논할새 제신(諸臣)이 다 정수정 아니면 대적할 자 없나이다 하거늘 상 왓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오?”

제신 왓

“차인이 비록 여자인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 나오니 폐하는 염려 마소서.”

하거늘 상이 마지못하여 사관(仕官)을 청주에 보내어 정 후를 명조(命招)하신대 정 후가 대경하여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 속사하니 상이 반기시며 왓

㉣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북적(北狄)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 하였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

정 후가 왓

“신첩이 규중에 침몰하오나 성은을 감축하옵는 바라. 차시를 당하여 어찌安然히 앉아 있으리잇고? 신첩의 몸이 바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적을 소멸하여 천을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중략)

원수가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위로할새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취흥이 도도하매 문득 생각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중군 장연을 나입하라 하니, ㉤ 무사 쇠사슬로 장연의 목을 움아 장하에 이르매 장 후 꿇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대로 왓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함에 황상이 근심하사 나로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황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느냐? 장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怨)치 말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라 한대 장 후가 대로 왓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이거늘 소소 혐의로써 군법을 방자하고 가부를 곤육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리오?”

하거늘 원수가 차언(此言)을 듣고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어 왓

“그대 일의 형세를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맡음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 이미 범법하였은즉 어찌 부부지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착란케 하리오. ㉥ 그대 나를 초개(草芥)같이 여기는데 내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무사를 재촉하는지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연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 ②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연과 결혼했다.
- ③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 ④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연에게 군량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다.
- ⑤ 정수정은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원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며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있다.
- ④ ㉣: 장연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정수정은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45. ㉤에 나타난 '호왕'의 심리를 표현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분축원(含憤蓄怨)
-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 ③ 득의양양(得意揚揚)
- ④ 각골난망(刻骨難忘)
- ⑤ 천려일실(千慮一失)

4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균열이 생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며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연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 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장연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체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④ 장연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정수정이 녹록한 아내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